

한국 스포츠 새 역사 쓴다



소치올림픽 D-1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은 7일 오후 8시 14분(한국시간 8일 오전 1시14분) 흑해연안 러시아 휴양도시인 소치의 피스트 스타디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러시아는 1980년 모스크바 하계 대회를 치렀지만 겨울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치 하늘에서 성화가 타오르면 러시아는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에 이어 7번째로 동·하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나라가 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2일 현재 87개국에서 2900명여 가까운 선수가 7개 종목(15개 세부 종목)에 출전할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역대 최대규모 선수 71명 출전>=우리나라는 소치 대회 참가로 이미 동계올림픽 도전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썼다. 남자 41명, 여자 30명 등 역대 동계올림픽 출전 사상 가장 많은 71명의 태극전사가 소치 무대를 밟는다. 임원을 포함하면 120명으로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다.

태극전사 71명 6개 종목 '도전'

김연아·이상화·심석희 金 유력

모태범·이승훈·이한빈 金 후보

봅슬레이·스노보드·女컬링 기대

우리나라는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스키, 빙상,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컬링, 아이스하키, 루지 등 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이상을 획득해 2006년 캐나다 토론토 대회(7위)와 역대 최고 성적을 낸 2010년 밴쿠버 대회(5위)에 이어 3회 연속 종합순위 10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잡았다. 대회 2연패를 준비하는 '피겨 퀸' 김연아와 '빙속 여제' 이상화(서울시청),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차세대 여왕 심석희(세화여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밖에서도 금메달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심석희는 여자 1000m와 1500m를 석권하고 3000m 계주 금메달에도 힘을 보태 3관왕이 될 것으로 점치는 해외 언론도 늘고 있다. 4년 전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금메달리스트인

모태범(대한항공)을 비롯해 남자 쇼트트랙 이한빈(성남시청), 여자 쇼트트랙 박승희(화성시청)와 김아람(전주제일고) 등도 연재된 '금빛 레이스'에 가세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컬링·스노보드 첫 올림픽 무대>=이전 올림픽까지 우리나라는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등 빙상 3개 종목 외에는 메달을 수확한 적이 없다. 출전 선수도 이들 종목에 집중됐다. 소치올림픽 전체 메달 중 절반이 걸린 스키에서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스키점프팀이 단체전에서 8위에 오른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톱10'일만큼 다른 종목들은 여전히 취약하다. 하지만 이번 소치 대회를 통해 한국 겨울 스포츠에도 새 기운이 불고 있다. 경기도청팀으로 구성된 여자 컬링 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면 이번 대회에서 봅슬레이와 루지는 전 종목에서 출전권을 획득하는 등 불모지에서 싹을 틔우려던 그동안의 노력이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했다. 설상 종목에서도 프리스타일 모굴 스키의 '새별' 최재우(한국체대)와 스노보드의 김호준(CJ제일제당) 등은 이번 대회를 발판삼아 4년뒤 평창올림픽에서는 메달까지도 노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만큼 성장했다. 이번 소치올림픽은 세 번째 도전 끝에 겨울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 평창의 비전과 준비 상황을 드러낼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2014 소치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 경기 일정 (한국시간 기준)

2.8(토)	2.10(월)	2.11(화)	2.12(수)	2.13(목)	2.15(토)	2.18(화)	2.20(목)	2.21(금)	2.22(토)	2.23(일)	2.24(월)
01:14 개막식 20:30 스피드스케이팅 남 5000m 이승훈	22:00 스피드스케이팅 남 500m 모태범·이규혁	21:45 스피드스케이팅 남 500m 이상화	23:00 스피드스케이팅 남 1000m 모태범	19:00 쇼트트랙 女 500m 심석희·박승희 23:00 스피드스케이팅 女 1000m 이상화	19:00 쇼트트랙 女 1500m 심석희·김아람·박승희	22:00 스피드스케이팅 남 10000m 이승훈	00:00 피겨 女 쇼트프로그램 김연아	00:00 피겨 女 프리스케이팅 김연아	01:30 쇼트트랙 남 500m 남 5000m 계주 박세영·심석희 등	01:30 피겨 女 갈리쇼 김연아	01:00 폐막식

국민 81% "한국, TOP 10"

한국갤럽, 예상성적 설문

한국인의 81%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이 종합 순위 10위 내 성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여론조사 전문가 한국갤럽은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해 이같이 결과를 얻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 대표팀의 예상 성적을 물은데 대해 81%가 10위 안에 들 수 있다고 답한 반면 4%만이 '10위권에 들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10위권 안에서의 구체적인 예상 종합 순위로는 전체 응답자의 30%가 5위 이내를 택했고, 41%는 6~10위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성별로는 남성(79%)보다는 여성(83%)이 10위권 진입을 낙관했고, 연령별로는 20대의 기대치가 가장

높아 '10위 이내'가 88%, '5위 이내'도 45%에 달했다.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꼭 따기를 바라는 종목으로는 피겨스케이팅이 63%로 1위에 올라 김연아의 올림픽 2연패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피겨는 이번 대회 가장 관심 있게 TV중계를 지켜볼 종목에 관한 질문에서도 63%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상화(25·서울시청)·모태범(25)·이승훈(26·이상 대한항공)이 출전하는 스피드스케이팅이 33%의 비율로 두 번째 금메달 희망 종목으로 꼽혔고, 전통적인 '메달밭' 쇼트트랙이 25%로 뒤를 이었다. 이번 대회에 대한 관심도를 물은데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는 답변이 64%에 달해 2012 런던 하계올림픽 때의 59%보다 높았다. 이번 설문 조사의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였다. /연합뉴스

한국 배분 입장권 2483장 매진

오는 7일 개막하는 소치동계올림픽 인기가 고조되면서 한국에 공식 배분된 입장권 2500여장이 모두 판매됐다. 한국에서 소치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단독 판매하는 대행사로 지정된 하나투어는 개·폐막식과 피겨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키점프 등 조직위원회로부터 분배 받은 입장권 2483장이 모두 판매됐다고 5일 밝혔다. '피겨 여왕' 김연아가 출전하는 피겨스케이팅 입장권은 최고 가격이 95만원에 달하는 갈리쇼 A석 티켓을 포함해 220장이 단숨에 매진됐다. 194만원으로 입장권 가운데 최고가였던 개막식 티켓도 135장이 모두 팔렸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기업과 정부 측에서 단체 응원 차원에서 한꺼번에 구매한 티켓이 많긴 하지만 김연아의 출전에 힘입어 일반 관람객의 예매 경쟁도 치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소치 해안클러스터 아틀레르 아레나에서 훈련중인 이상화. /연합뉴스

25년전 가구 최대보상 첫 행사 SINCE 1989, 2월 28일까지

이태리 가구 보상판매

NAVER

홍스페이스

☎ 1899-0240

광주광역시 동구청 옆

홍스페이스 SPACE